

“군사보호구역 지정” vs “자유 이용” 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해군 “강정기지 방파제 안쪽 수역 보호 필요” 1년 6개월만에 제주자치도에 논의 재개 요청 도 “해군기지 갈등 여전... 지정 논의 시기상조”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방파제 안쪽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1년 6개월 만에 협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열린 제6차 민·관·군 상생협의회 회의에서 해군본부는 제주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민·관·군 상생협의회의 갈등 치유와 민군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무조정실과 제주도, 해군본부, 제주기지전대, 강정마을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

미항 크루즈선 접안 부두와 입·출항로, 선회장 등 방파제 안쪽 전체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하나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주도와 협의를 벌여왔다.

해군의 방침대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뒤 허락을 얻어야 입항할 수 있다.

반면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할 수 없고, 지난 2013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맺은 협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며 지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3년 3자가 맺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는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곤 언제든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단 이 협정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 논의는 지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해군은 제6차 민·관·군 상생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꺼냈지만 제주도는 시기상조라며 거절했다.

도 관계자는 “해군기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크루즈선 입항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해군본부 측에 전달했다”며

“본부도 우리 측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이 문제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또다른 갈등 현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친수공간 관리·보수비용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와 친수공간을 공동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방파제 파손 등 유지보수비가 큰 쪽을, 제주도는 난간 정비와 청소 등 유지보수비가 적은 쪽을 부담하기로 했다.

“강정해요름노을길”이라고 이름 붙은 이 친수공간은 해군이 내놓은 강정마을 상생·발전사업 가운데 하나로, 민군복합형 서방파제(420m)와 남방파제(690m)를 따라 길다랗게 조성된 산책 길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해군은 이 산책길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상민기자

4일 오후 5시 기준 42명 확진 초등학교 21명 추가 모 선교센터 이날 9명 감염 만 12세 백신접종 예약 시작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와 제주도 소재 선교센터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며 하루 세 도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5시 까지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4768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누적 확진자도 104명으로 나타나 4일 만에 100명을 돌파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엔 200명이 감염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8명,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타지역 관련 3명, 코로나19 유증상자 1명 등이다.

이날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주 요인으로는 서귀포시 초등학교

와 제주도 선교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꼽힌다.

서귀포시내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하루 동안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서귀포시 초등학교2’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22명이다.

또 제주도 소재 선교센터에서 이날 하루 동안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가정) ‘제주시 선교센터’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이날 ‘제주시 보육시설’ 집단감염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만 12세(2010년생 중 생일 경과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 청소년의 접종을 1월부터 시행한다. 4일 0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 접종과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1차 접종 3주(21일) 후 2차 접종을 진행한다. 도내 접종 대상자는 6980명으로 추산됐다. 강다혜기자



초미세먼지 나쁜 날 제주시내 초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을 보인 4일, 제주시 도두봉에서 바라본 노형동 일대가 뿌연게 보이고 있다.

이상민기자

■ 지법, 50대 보이스포싱 수거책 ‘무죄’ 선고 “정신장애로 범죄 인식 없어”

보이스포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장애로 경제활동 경험 부족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3일 낮 12시쯤 제주시에서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씨에게 8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날 오후 7시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4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불상의 보이스포싱 조직이 보낸 “수금사원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책에 나섰으며, 피해자들 역시 해당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범행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에게 자신의 취업 조건을 자랑했다가 “보이스포싱 일을 하는 사람한테나 그런 일당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나 부족한 경제활동 경험에 비해 보이스포싱 조직의 유인 문자를 진심한 구인문자로 믿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늦은 심야 시간임에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자신의 업무가 정당한 수금업무라고 굳게 믿었음을 방증하는 사정”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소방 ‘장비 매뉴얼·관리 평가’ 전국 2위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 주관 ‘소방장비 매뉴얼 작성·운영관리 평가’에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2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소방장비 매뉴얼 작성·운영관리 평가는 시도별로 서면·영상·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한 매뉴얼 36점에 대해 창의성, 전문성 및 정

확성, 적용 가능성, 충실도, 노력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현장 대원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이동식 동력 펌프와 체인톱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장비 사용법 및 긴급상

황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동영상 매뉴얼을 추가 제작해 현장 대원들이 소방장비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골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랑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계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베니),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탱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원묘목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